

일본경제리뷰 No.20-1

Contents

I. 한일경제 동향	2
1. 한일 무역 동향	2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4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5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8
1. 일본 무역 동향	8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11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3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15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21
III. KJCF & KJE News	25
IV. 한일경제지표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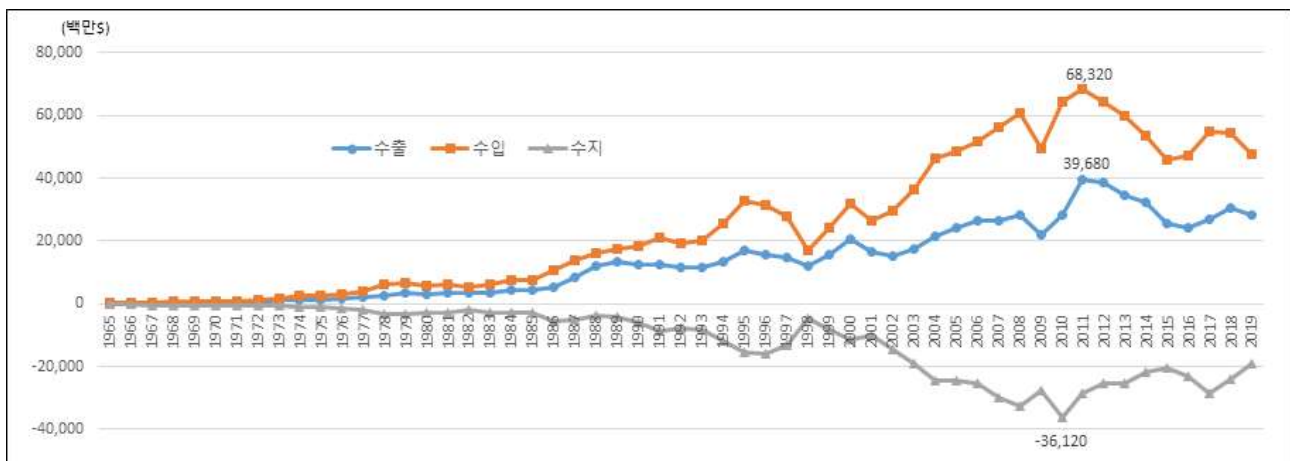
I. 한일경제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1965년부터의 통계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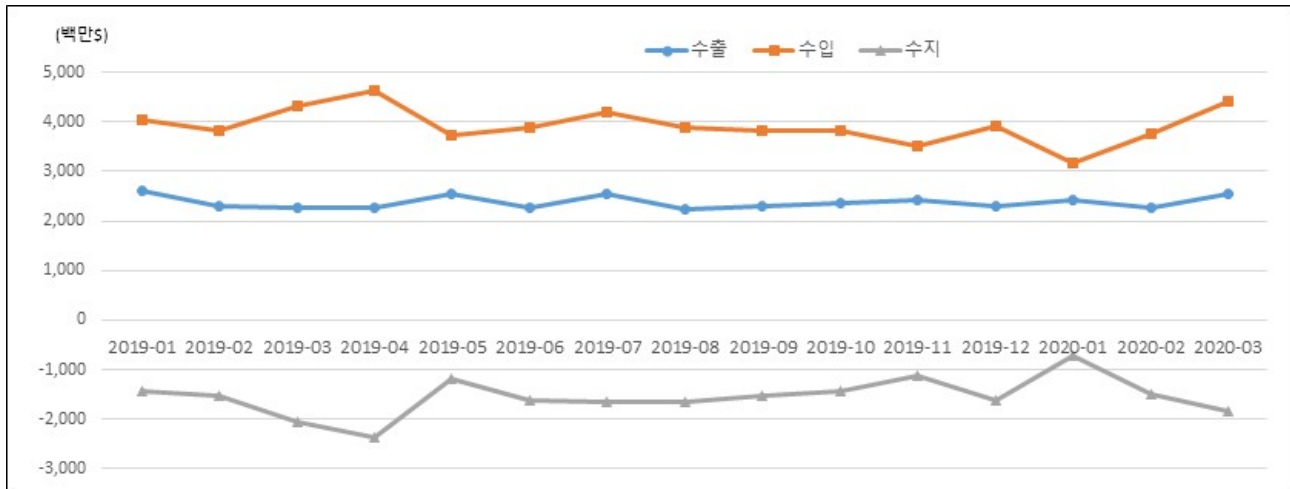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는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음
-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수출은 약간 감소하였지만 큰 변화는 없었음
- 발표 이후 수입과 무역적자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2월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무역의 2020년 3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0년 3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일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3.1% 증가하여 25.6억 달러에 달함
 -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하여 44.0억 달러에 달함
 - 그 결과 무역수지는 18.4억 적자로 나타남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은 5.5%, 수입은 10.4%였음
- [Ⅵ. 한일경제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입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음
 - 수출 경우는 전년동월 대비 수송기계가 149.4%, 산업용전자제품이 60.1%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이 14.6%, 석유화학제품이 2.6% 감소함
 - 수입 경우는 전년동월 대비 정밀기계가 34.1%, 전자부품이 23.2%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제품이 22.7%, 산업기계가 15.7% 감소함

〈표1〉 한일 무역의 2020년 3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46,694	-0.7	42,100	0.3	4,594
일본 부분	2,558	13.1	4,397	1.9	-1,839
일본 비중	5.5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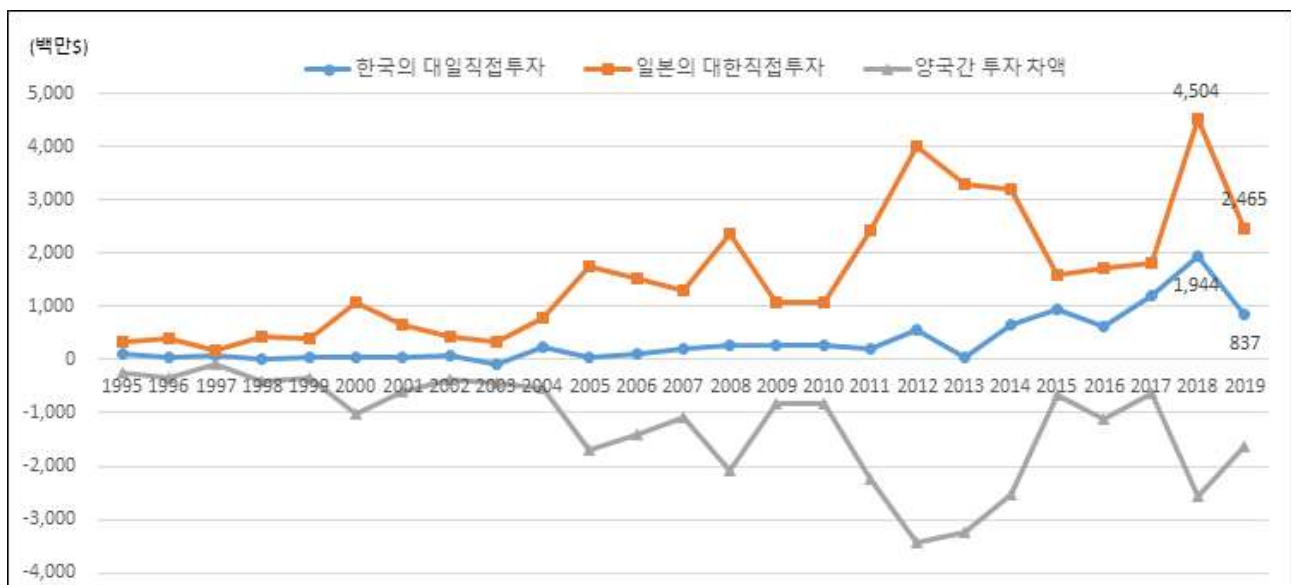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그림3> 한일 양국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2>는 최근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일본의 대한직접투자(대외 직접투자 중 한국부분)는 2020년 2월에 전월 대비 증가하였음
 - 2020년 2월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금액은 124억 엔이었고,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일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2020년 2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 금액은 47억 엔으로 크지 않았으나, 전체 대내직접투자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내직접투자 전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비교적 높았음

<표2> 최근 한일 직접투자 상황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2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	28,545	8,063	17,910	-1,645	13,275	1,132
한국 부분(억¥)	107	159	28	67	124	47
한국 비중(%)	0.4	2.0	0.2	-	0.9	4.2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2월10일, 3월9일, 4월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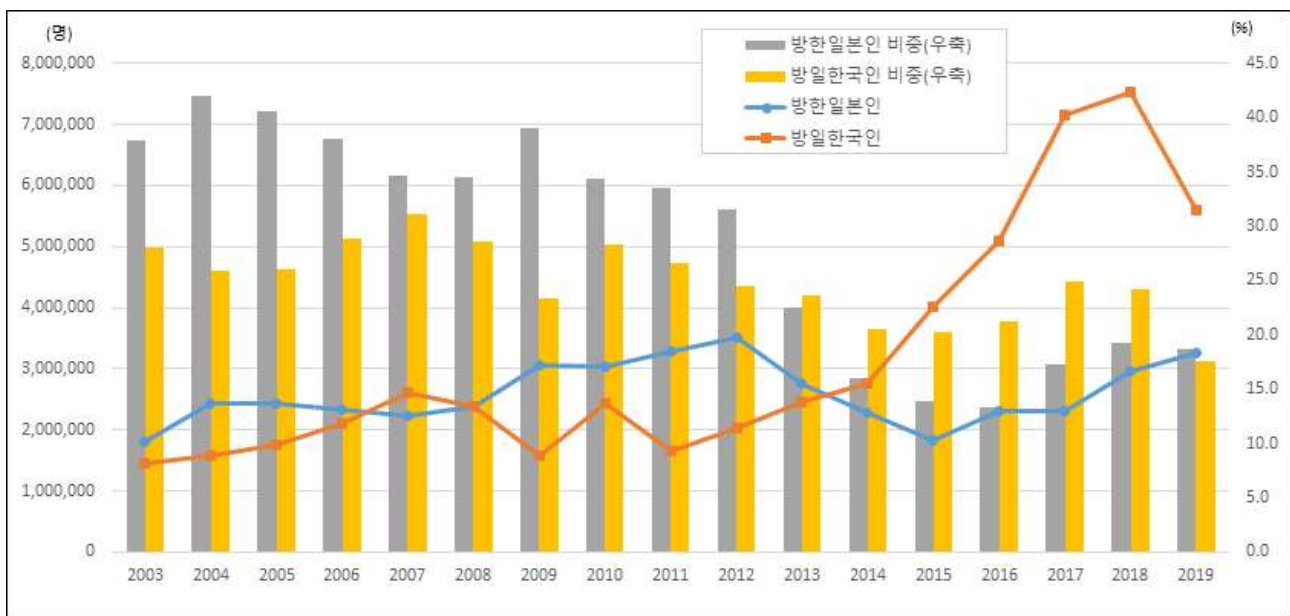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함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함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여 327만 명에 달함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과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일외국인 총수는 3,188만 명이었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1,750만 명이었음)

〈그림4〉 한일 인적교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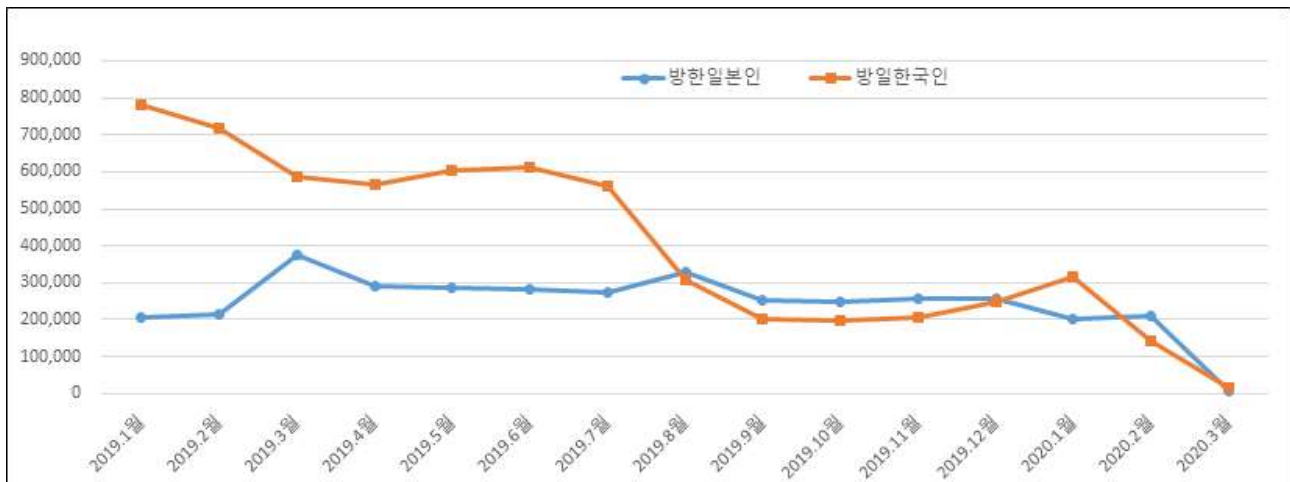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5〉는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방일한국인 수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크게 감소하였음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1월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8월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왔음
- 하지만 방일한국인 수 및 방한일본인 수는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3월에는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

〈그림5〉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3월 상황

- <표3>은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3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크게 줄어든 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방한외국인 전체 수는 83,497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4.6%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8,347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7.8% 감소하였음
- 방한일본인의 감소 정도가 전체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10.0%로 크게 낮아짐
-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93,7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3.0%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16,7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7.1% 감소하였음
- 방일한국인 감소 정도가 전체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8.6%로 크게 낮아짐

〈표3〉 한일 무역의 2020년 3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일본방문 외국인		
	방문객수	증감률(%)		방문객수	증감률(%)
전체(명)	83,497	-94.6	전체(명)	193,700	-93.0
방한 일본인(명)	8,347	-97.8	방일 한국인(명)	16,700	-97.1
일본인 비중(%)	10.0		한국인 비중(%)	8.6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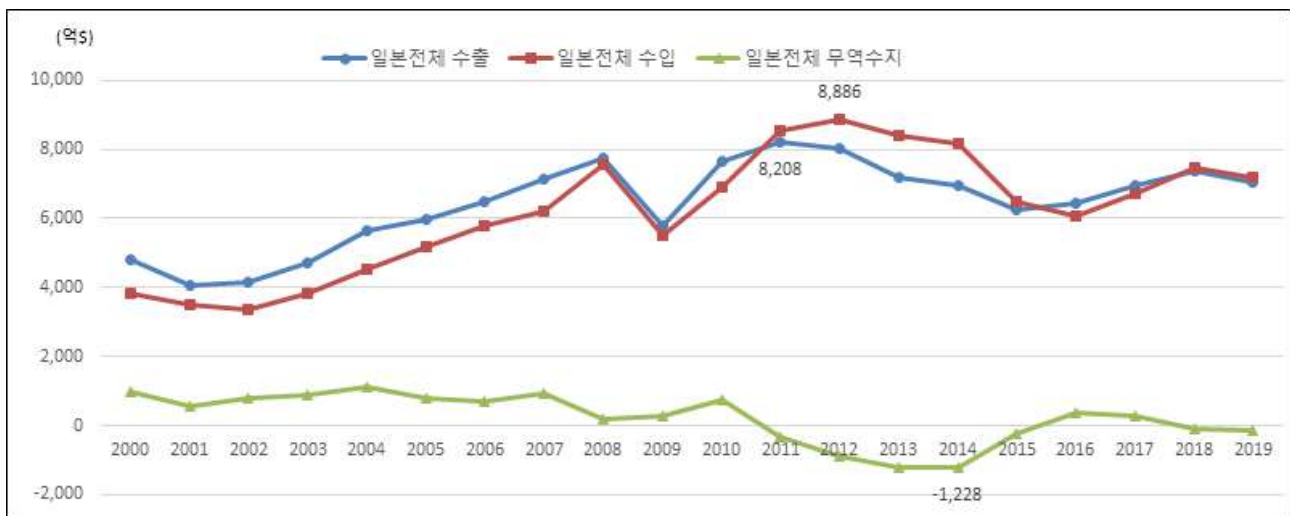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1. 일본 무역 동향

□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보인 후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였음

<그림6>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무역의 2020년 3월 상황

- <표4>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3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1.7% 감소하여 6조 3581억 엔에 달함
-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5.0% 감소하여 6조 3526억 엔에 달함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 대비 99.0% 감소하여 54억 엔에 불과하였음

〈표4〉 2020년 3월 일본전체 무역 상황

	2019년 3월	2020년 3월	증감률
수출(백만¥, %)	7,202,147	6,358,054	-11.7
수입(백만¥, %)	6,684,855	6,352,646	-5.0
수지(백만¥, %)	517,292	5,408	-99.0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4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5〉는 일본전체 무역의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4.3%, 수입의 47.7%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9.4%, 수입은 4.0% 감소함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18.7%, 수입의 22.2%를 차지하였고, 일본의 대중 무역적자는 2,412억 엔에 달했음
- 한국은 수출에서는 제3위 수입에서는 제4위 무역 상대국이었는데, 수출의 7.0%, 수입의 4.2%를 차지하였고, 일본의 대한 무역흑자는 1,806억 엔에 달했음
- 제2위 무역 상대국인 미국은 수출의 18.6%, 수입의 11.7%를 차지하였고,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4,369억 엔에 달했음
-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전반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영국에 대한 수출이 23.5% 감소하였고, 프랑스로부터의 수입이 38.5% 감소하였음

〈표5〉 2020년 3월 일본전체 무역의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6,358,054	100.0	-11.7	6,352,646	100.0	-5.0	5,408	-99.0
아시아	3,453,047	54.3	-9.4	3,030,308	47.7	-4.0	422,739	-35.5
중국	1,190,644	18.7	-8.7	1,431,870	22.5	-4.5	-241,226	24.0
홍콩	278,053	4.4	-14.2	6,843	0.1	-84.3	271,210	-3.3
대만	432,010	6.8	-1.5	236,342	3.7	-4.1	195,668	2.0
대한민국	446,723	7.0	-10.4	266,098	4.2	-4.9	180,625	-17.6
싱가포르	159,563	2.5	-33.7	78,840	1.2	6.9	80,723	-51.7
태국	256,373	4.0	-15.4	230,547	3.6	-4.9	25,826	-57.5
말레이시아	129,952	2.0	2.4	176,584	2.8	-1.5	-46,632	-11.2
인도네시아	131,776	2.1	-2.7	156,334	2.5	-6.7	-24,558	-23.7
필리핀	84,307	1.3	-15.4	94,828	1.5	-9.8	-10,521	92.8
베트남	172,200	2.7	10.2	224,132	3.5	18.1	-51,932	55.3
인도	108,290	1.7	-13.2	49,210	0.8	0.1	59,080	-21.8
대양주	167,337	2.6	-10.7	454,302	7.2	-13.9	-286,965	-15.7
호주	124,521	2.0	-5.7	403,294	6.3	-15.4	-278,773	-19.2
뉴질랜드	20,629	0.3	-22.9	23,538	0.4	12.3	-2,909	-
북미	1,257,044	19.8	-16.5	849,246	13.4	1.9	407,798	-39.3
미국	1,182,095	18.6	-16.5	745,224	11.7	1.3	436,871	-35.7
캐나다	74,948	1.2	-15.8	103,259	1.6	6.9	-28,311	271.9
중남미	252,416	4.0	-19.7	250,767	3.9	1.1	1,649	-97.5
서유럽	753,750	11.9	-13.2	782,639	12.3	-12.4	-28,889	14.9
독일	183,530	2.9	-12.6	198,581	3.1	-19.0	-15,051	-57.2
영국	114,409	1.8	-23.5	64,153	1.0	-17.7	50,256	-29.8
프랑스	62,787	1.0	-9.1	82,852	1.3	-38.5	-20,065	-69.5
네덜란드	114,517	1.8	-11.2	22,408	0.4	-16.8	92,109	-9.7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47,838	2.3	-14.9	189,625	3.0	1.3	-41,787	208.4
중동	234,113	3.7	1.1	701,167	11.0	-9.3	-467,054	-13.7
아프리카	92,509	1.5	-17.3	94,565	1.5	39.9	-2,056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4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 경우는 모든 품목에서 감소하였으나, 수입은 식료품, 원료품, 전기기기 등 일부 품목에서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음
 - 수출 경우는 구성비가 가장 높은(22.5%) 수송용기계(자동차 등)가 18.2% 감소하였고, 구성비가 그 다음으로 높은(19.9%) 일반기계가 17.9%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구성비가 가장 높은(21.4%) 광물성연료(원유 등)가 11.7% 감소하였고, 구성비가 그 다음으로 높은(16.0%) 전기기기는 휴대폰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해 오히려 2.6% 증가하였음

- 이러한 점은 [Ⅵ. 한일경제지표]에 있는 HS코드 2단위 기준 10대 수출입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표6〉 2020년 3월 일본전체 무역의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가격	구성비	증감률
총액	6,358,054	100.0	-11.7	6,352,646	100.0	-5.0
1 식료품	62,149	1.0	-9.5	574,417	9.0	0.5
2 원료품	95,040	1.5	-4.9	390,926	6.2	1.9
3 광물성연료	101,779	1.6	-5.5	1,361,912	21.4	-11.7
4 화학제품	750,355	11.8	-5.2	692,909	10.9	0.0
5 원료별제품	750,292	11.8	-2.1	571,268	9.0	-4.4
6 일반기계	1,264,047	19.9	-17.9	592,993	9.3	-9.6
7 전기기기	1,133,942	17.8	-3.5	1,016,066	16.0	2.6
8 수송용기기	1,428,311	22.5	-18.2	284,624	4.5	-8.1
9 기타	772,138	12.1	-15.0	867,530	13.7	-7.8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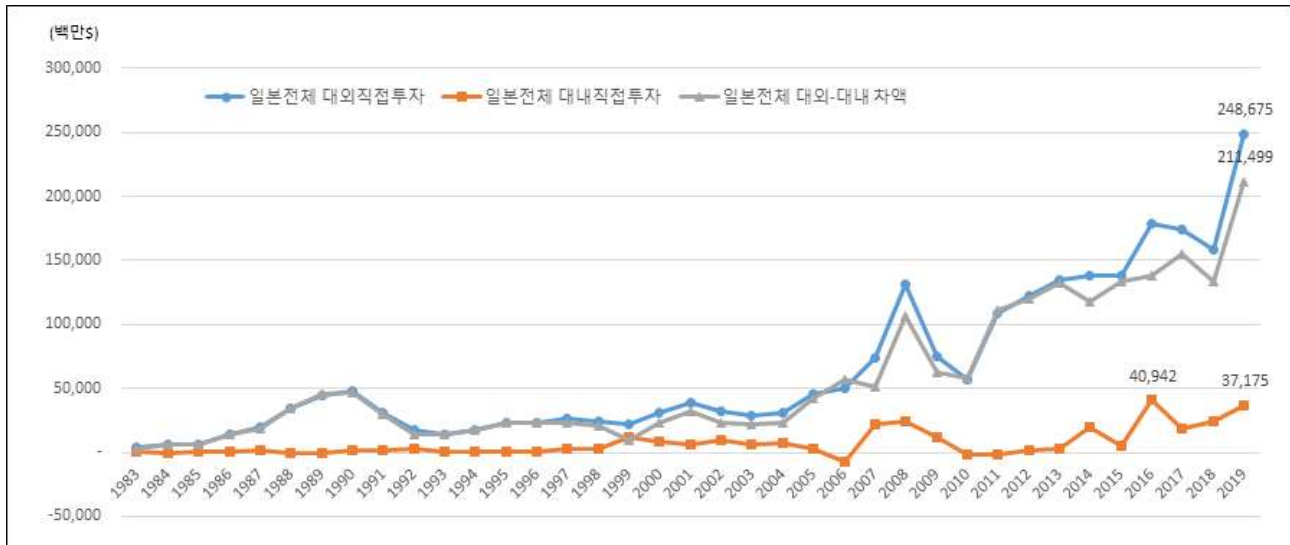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4월 28일)에 근거하여 작성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림7〉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및 대내직접투자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7〉은 2020년 2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외직접투자가 대내직접투자보다 크게 초과하여 대외-대내 차액은 1조2,143억 엔에 달하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지역적으로 아시아(31.5%), 북미(26.5%), 유럽(36.2%)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분산되어 있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3,411억 엔(25.7%)로 가장 많았고, 중국에 대한 투자가 1,275억 엔(9.6%)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영국에 대한 투자는 투자액보다 회수액이 더 많아 순투자는 마이너스가 되었음
- 2020년 2월의 대내직접투자는 1,132억 엔에 불과하였고, 아시아로부터의 투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하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싱가포르로부터의 투자가 723억 엔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였음
 - 그 다음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34.3%), 프랑스(29.1%), 미국(20.6%) 등이었음
 - 영국으로부터의 투자는 투자액보다 회수액이 더 많아 순투자는 마이너스가 되었음

〈표7〉 2020년 2월 일본의 직접투자 상황

	대외직접투자(억엔, %)		대내직접투자(억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13,275	100.0	1,132	100.0
아시아	4,179	31.5	878	77.6
중국	1,275	9.6	-6	-0.5
홍콩	266	2.0	69	6.1
대만	256	1.9	38	3.4
한국	124	0.9	47	4.2
싱가포르	822	6.2	723	63.9
태국	639	4.8	41	3.6
인도네시아	251	1.9	-2	-0.2
말레이시아	85	0.6	-12	-1.1
필리핀	93	0.7	-22	-1.9
베트남	132	1.0	0	0.0
인도	202	1.5	0	0.0
북미	3,524	26.5	243	21.5
미국	3,411	25.7	233	20.6
캐나다	112	0.8	10	0.9
중남미	78	0.6	-192	-17.0
대양주	519	3.9	-75	-6.6
호주	521	3.9	0	0.0
뉴질랜드	-13	-0.1	2	0.2
유럽	4,807	36.2	229	20.2
독일	190	1.4	34	3.0
영국	-1,463	-11.0	-784	-69.3
프랑스	479	3.6	329	29.1
네덜란드	306	2.3	388	34.3
중동	74	0.6	7	0.6
아프리카	95	0.7	41	3.6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4월8일)에 근거하여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0년 4월 경제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4월 23일)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감염증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
 - 신칸센 등의 이용 실적이 2월에 감소하였고 3월에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됨
 - 외식은 테이크아웃 수요는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함
 - 3월 가전판매와 신차판매 대수는 전년대비 감소함
 - 향후에도 감염증 영향으로 소비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투자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일본은행의 3월 短観(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2019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증가가 예상되고, 2020년도 계획에서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 수주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주택건설은 내림세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고, 임대주택의 착공은 최근 감소추세가 멈추는 움직임이 보임
 - 분양 주택의 착공은 최근 내림세임
- 공공투자는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유지되고 있음
 - 2월 공공 공사 실적은 전월 대비 2.8% 감소, 3월 공공 공사 하청금액은 전월 대비 14.8% 증가함
 - 2월 공공 공사 수주액은 전월 대비 2.1% 증가함
- 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은 각각 최근 감소하고 있고, 무역 수지는 흑자임
 - 수출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미국 대상 수출은 최근 감소하고 있고, EU 대상 수출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고, 3월 방일외국인 수는 전년동월 대비 93% 감소함
 - 수입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미국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최근 감소추세임
 - 2월의 무역수지는 수입금액의 감소로 인해 흑자로 되었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기업의 생산은 감염증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음
 - 광공업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데, 2월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0.3% 감소함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3월과 4월에는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기업들의 생산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제3차 산업의 활동도 감염증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음

- 기업의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고, 도산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가 나타남
 - 일본은행 3월 短觀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 전년 대비 0.7% 감소, 하반기 0.8% 증가가 예상되고, 경상이익은 상반기 7.2% 감소, 하반기 2.9%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도 감염증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 도산 건수는 2월 651건, 3월 740건으로 증가 추세가 나타남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취약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고용자 수는 최근 보합권으로 추이하고 있고, 신규 구인 수는 감소경향이 나타남
 - 유효구인배율은 낮아지고 있고, 제조업의 잔업시간은 감소하고 있음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 총액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실질 총고용자소득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은행 3월 短觀에 따르면 기업들의 고용인원 판단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음

[물가 및 금융]

- 국내 기업물가는 최근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최근 보합상태임
 - 3월 국내 기업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전월 대비 0.9% 하락하였고, 수입물가(엔 기준)도 하락하였음
 -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보합상태임
 - 3월 기준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은 전월 대비 6.2% 하락하여 70.3%로 되었고, 소비자물가는 향후 보합권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하락-상승-하락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고-엔저-엔고 추세를 보임
 - 주가는 19,300엔대에서 17,800엔대까지 하락한 후 다시 19,800엔대까지 상승하다가 19,200엔대로 하락함
 -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은 108엔 대, 107엔 대, 108엔 대, 107엔 대 등으로 엔고, 엔저, 엔고를 반복함
 - 기업의 자금 운용 상황에는 큰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2020년 4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4월 23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및 201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부터의 복구 및 부흥,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탈피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동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 2019’, ‘성장전략 실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성장능력 강화에 노력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모두가 활약할 수 있고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제도를 실현하고자 함
- 일본 정부는 COVID-19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함
 - 4월 7일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긴급사태선언을 함
 - 4월 16일 전국 도도부현을 긴급사태조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전국민 대책을 강화함
 -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켜내고 경제 재생을 위하여’라는 대책(4월 7일 각료회의 결정, 4월 20일 변경 각료회의)을 신속히 실행함
 - 이를 위해 2020년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0년도 보정예산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기 성립을 위해 노력함
- 일본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함
 - 일본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
 - 일본은행은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음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COVID-19가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 3월 전국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의 부정적 결과 (아사히신문, 20.4.1)
 - 일본은행이 4월 1일 발표한 3월 전국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에서 대표적인 지수인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DI)가 마이너스 8을 기록함
 - 이 조사는 3월 11일까지 약 70%의 기업들이 회신을 하여 COVID-19나 도쿄 올림픽 연기 영향이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나, 대기업·제조업의 2020년도 설비 투자 계획은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음
 - 또한, 고용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우 과잉으로 응답이 나타남
 - 자금유통판단지수는 전회 조사대비 저하되어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태도 지수의 악화 (NHK, 20.4.6)
 - COVID-19 감염 확대 영향으로 전국 8,400세대를 대상으로 향후 반년 간의 생활 형편이나 쇼핑에 대한 의욕 등을 조사하여 수치화한 ‘소비자 태도 지수’는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2013년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악화됨
 - 항목별로는 고용환경 지수가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인 경제전망 (닛케이신문, 20.4.10)
 - 일본경제연구센터가 9일 정리한 민간 이코노미스트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0년 4~6월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예측 평균은 전기 대비 연률로 11.08% 감소함
 - COVID-19 감염 확대와 긴급사태 선언으로, 예측의 하향 조정이 잇따랐는데, 일본 경제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전망이다
 - 국내외에서 COVID-19 감염이 확대됨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침체를 예측하였고, 긴급사태 선언으로 한층 더 전망이 악화되고 있음
- 무역 축소의 가속화 (닛케이신문, 20.4.20)
 - COVID-19 감염 확대로 무역의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음
 -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3월 무역통계에 의하면 수출이 모두 무너졌는데, 주요 36개국·지역 중 80%에서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이 두 자릿수 감소가 됨
 - 2월까지 주로 대중국에서 두드러졌던 수출입 감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취약성도 드러남

- 고액품인 자동차 판매는 경기 악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리먼 위기 때도 일본 경제는 자동차와 전자기기 등의 수출 감소에 직면했음
- 금융 시스템이 구미보다 튼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수량이 3할 가깝게 줄어 독일이나 영국보다도 큰 영향을 받았음
-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전망 (닛케이신문, 20.4.23)
 - 닛케이신문사의 종합 경제데이터뱅크 ‘NEEDS’의 일본경제모델에 2020년 4월 22일까지 공표된 각종 경제지표 정보를 포함시킨 예측에 의하면, 2019년도의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0.2%, 2020년도는 마이너스 4.0%가 될 것으로 전망됨
 - COVID-19의 세계적인 감염 확산 영향으로 경기는 급강하하고 있음
 - 2020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4% 감소되었는데, 세계경제 침체와 중국 등에서의 공급망 혼란으로 수출이 전기 대비 감소폭을 확대한 것으로 보임
 - 민간최종소비지출(개인소비)과 설비투자도 2분기 연속 감소할 공산이 크고, 2분기의 경기는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외출 자제 등으로 개인소비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 수출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임
 - COVID-19 감염은 4~6월이 피크라고 상정하고 있지만 3분기에도 경제에 대한 영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의 대응

- 일본정부는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함 (NHK, 20.4.7)
 - 4월 7일 일본 정부는 임시 내각회의를 열어 COVID-19 감염 확대에 따른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용 유지를 위해 일시적인 휴업 등에서 종업원의 고용 유지를 도모하는 기업에 대해 휴업 수당 등의 일부를 조성하는 고용 조정 조성금을 확충하며,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나 보증을 확대함
 - 또한, 국가가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지의 신용보증협회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보증하는 제도에서는 보증한도를 늘리고 기업이 지급하는 보증요율을 감면함
 -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매출이 감소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위기대응융자’로 불리는 특별한 대출제도의 대출한도를 현재의 2,040억 엔에서 5조 엔으로 확대하고, 이용객이 격감해 대폭 운휴와 감편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서 하네다공항 등 국가가 관리하는 공항에 각사가 지불하는 공항사용료를 최대 반년 간 유예함

- 이 외에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 등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변제가 필요한 급부금을 지급함
 - COVID-19 수습 후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서 관광, 운수, 음식이나 이벤트 사업 등을 대상으로 소비 환기책을 실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 엔에 달하는 ‘지방창생 임시교부금’을 새롭게 창설함
 - COVID-19 감염 확대로 큰 영향을 받은 부품 등의 공급망 개혁을 함
 -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나 부품 생산거점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은 비용의 3분의 2, 대기업에도 2분의 1을 보조함
 - 특히 국내에서 부족한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거기에 방호복이라고 하는 긴급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중소기업은 4분의 3, 대기업은 3분의 2로 끌어올림
- 신형 코로나 긴급경제대책 현금급부, 복잡한 요건과 창구에서의 혼란 우려 (마이니치, 20.4.8)
- 긴급경제대책에서는 현금급부가 핵심이지만, 그 요건이 복잡하고 창구에서의 혼란이 우려됨
 - 장기간 자숙 및 휴업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과 야당으로부터 벌써 추가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경제대책은 108조 엔의 사업규모라고 하지만, 세금·사회보험료 지불의 유예와 금융기관을 통한 저리·무이자 융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함
 - 언젠가는 납세·납부 및 변제를 해야 하는 차입금에 해당되기에 이러한 제도의 이용자 입장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 연기된 것에 불과함

긴급경제대책의 주요 내용			
긴급지원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확대 방지, 의료체제 정비, 치료약 개발 - 금년도 내에 ‘아비간’을 200만 명분 비축 - 5만개를 넘는 감염증 병상을 확보 - 초진을 포함한 온라인 진료의 활용 		재정지출 2.5조 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 사업계속 - 고용조정조성금(助成金)의 조성률을 최대 90%까지 인상 -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엔, 개인사업주에 최대 100만 엔을 지급 -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30만 엔을 지급 - 아동수당수급 세대에 아동 1명당 1만 엔 지급 		재정지출 22.0조 엔 (사업규모 80.0조 엔)
V 자형회복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협력으로 경제활동의 회복 - 1박 2만 엔을 상한으로 여행비용을 보조 - 이벤트 등 티켓 비용을 보조 		재정지출 3.3조 엔 (사업규모 8.5조 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를 내다본 강인한 경제구조의 구축 - 생산거점 국내회기 지원을 확충 - 텔레워크 도입촉진 지원을 확충 		재정지출 10.2조 엔 (사업규모 15.7조 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 대한 준비 - 1조 엔의 ‘대책예비비’ 창설 		재정지출 1.5조 엔
재정지출 합계 39.5조 엔		사업규모 합계 108.2조 엔	

- 일본정부는 고용조정조성금 확충을 결정함 (NHK, 20.4.26)
 - 후생노동성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성금을 한층 더 확충하기로 결정함
 - 고용조정조성금은 매출이 감소해도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후생노동성은 이달 8일 이후 휴업수당을 대상으로 조성률을 더 올리기로 함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임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 수당을 종업원에게 지불했을 경우, 60%를 넘은 분의 비용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기업이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60%를 지불하거나 전액을 지불해도 부담은 동일하게 됨

□ 한일 협력 관련 동향

- 한일협력을 촉구하는 도쿄신문의 사설: 한국 여당 압승을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한일협력을 할 시기임 (도쿄신문, 20.4.7)
 - COVID-19 피해가 계속되는 한국에서 총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여당이 압승함
 - 정권 운영은 안정되겠지만, 경제 부분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대일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를 바람
 - 한일 간에는 징용공을 둘러싼 소송이 있고, 원고측이 추진하고 있는 피고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6월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역사관련 분쟁 해결은 간단하지 않지만, 지금은 이념이나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협력해야 할 시기이며, 여당 압승을 계기로 해서 일한 관계의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 COVID-19 감염 확산으로 일본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한국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사히신문, 20.4.18)
 - 그 이유는 일본정부의 입국 금지로 일본을 방문하여 취업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임
 - 취업준비생인 한 대학생은 나고야의 할인점 체인의 1차 면접에는 통과했지만, 감염 확대로 인해 2차 면접이 연기가 되었다고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18년 일본 기업 취업자는 신규 졸업자를 중심으로 1,828명으로 5년 전보다 6배 늘었음
 - 올해는 감염 확대 영향으로 회사 설명회나 채용 면접을 연기하는 일본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나, 1차 면접을 웹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음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기업들의 긴급사태선언 대책

- 일본기업들은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함 (산케이신문, 20.4.8)
 - 일본정부는 4월 7일 COVID-19와 관련하여 긴급사태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각 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벅룩시장(중고거래) 앱 대기업인 메루카리는 8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사무실을 폐쇄하고 완전 재택근무 체제로 이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6개월분의 재택근무 수당으로서 1인당 6만 엔을 지급하기로 함
 - 일본생명보험은 8일부터 전체 사원의 절반가량인 약 3만 5천 명에게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노력을 시작함
 - 파나소닉은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 지역에 있는 약 30개 공장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하거나 생산을 축소하는 검토에 들어감
 - 이미 텔레워크 등을 시작한 히타치 제작소나 미쓰비시 물산, 미쓰비시상사 등은 재택근무를 철저히 하거나 강화함
 - 간사이전력은 재택근무자가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내선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에이치·아이에스(HIS)는 5월 6일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전사적으로 휴업하고, 휴업기간에도 정직원, 계약사원의 급여는 전액 지급함
 - 캐논은 도쿄도 오타구의 본사, 가나가와현 내의 사업소에서 5월 6일까지 임시 휴업하며, 휴업 수당은 60% 이상을 보상함

□ COVID-19가 항공업에 미친 영향

- 일본 국내 항공회사의 수입 감소가 예상됨 (요미우리신문, 20.4.5)
 - COVID-19 감염확대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일본 국내 항공회사의 2~5월 수입 감소규모가 5,000억엔을 넘을 것으로 알려짐
 - 국토교통성의 3월28일 집계에 따르면 3월 29일 ~ 4월4일에 일본을 발착한 국제선은 전년 동시기와 비교해서 약 92% 감소로 크게 하락함
 - 일본항공과 전일본공수는 4월 하순까지 국제선을 종래계획 대비 90% 가까이 운항을 감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항공은 임원보수 10% 자주적으로 반납하고, 전일본공수는 임원보수와 관리직의 급여를 감액하고 객실 승무원을 일시 휴업시키기로 함

○ 일본 항공회사의 정부지원 요구 (아사히신문, 20.4.25)

- 일본항공은 민간 대기업 금융기관에 용자한도의 설정 분을 포함해 3천억엔 규모의 용자를 요청했으며, 감편이 더 장기화될 경우 정부계 금융기관에도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함
- ANA홀딩스도 이미 일본 정책 투자 은행에 3천억 엔의 용자를 요청함

□ COVID-19가 제조업 분야 대기업에 미친 영향

○ 일본제철 고로 정지 (아사히신문, 20.4.8)

- 일본제철은 7일, 이바라키현 카시마시와 와카야마시의 제철소에서 고로 2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발표함
- COVID-19 감염 확대로 자동차용 등의 강재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고로 정지는 향후 수요에 따르지만 적어도 수개월에 이를 전망이라고 함
- 한편, 2기의 조강 생산능력은 일본제철의 국내 10% 이상에 해당하며, 관리직을 포함한 약 3만명의 종업원에 대해 4월부터 월 2일 정도의 일시 휴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SUBARU는 항공기 부품의 생산 일시 중단 (NHK, 20.4.17)

- SUBARU가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아이치 현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
- COVID-19 감염 확대로 부품 납품처인 미국 항공기 업체 보잉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종업원에 대해서는 휴일 대체 등으로 대응해 고용을 유지할 방침임
- 보잉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의 많은 메이커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 영향의 확대가 우려됨

○ 도요타자동차는 감산 (산케이신문, 20.4.23)

- 도요타자동차는 COVID-19 유행으로 인한 수요부진에 따라, 5월부터 국내공장의 감산 확대로 부품메이커의 타격이 더욱 심각화 될 우려가 있음

□ COVID-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 (닛케이신문, 20.4.24)

- 2020년 중소기업 백서에서는 COVID-19 감염 확대에 수반하는 영향에 관해, 숙박이나 음식 서비스업에서 “향후 반년間に 자금유통이 심각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백서에 의하면, 금년 3월말까지 공적인 상담 창구에 이루어진 신형 바이러스 관련의 자금유통 상담은 약 30만건에 이르렀음
- 상담기업 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35.4%)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21.5%)이 뒤를 이었음
- 이번 분석은 감염 확대가 되고 있는 중에 이루어져 중소기업청은 “소비 침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음

○ 중소기업의 자금유통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산케이신문 20.4.26)

- 3월 말 중소기업에게 COVID-19 감염 확대의 영향에 대하여 ‘언제까지 종식되면 경영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4월말’이 20.3%, ‘5월말’ 16.6%, ‘6월말’이 15.5%로 나타남
- ‘3월말’ (7.1%)도 포함하면 ‘6월말’까지라는 답변이 합계 59.5%로, 중소기업 사이에 자금유통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COVID-19에 대처하는 기업들의 전략

○ 의료분야에서는 온라인 진료 확대 (닛케이신문, 20.4.13)

- COVID-19 감염이 확대되는 가운데 초진 환자의 온라인 진료가 13일부터 해금됨
- 의료 종사자나 다른 환자에 대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특례적인 조치로 의료 현장에는 환영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시장에 대한 신규 참가기업도 나타남
- 전자 진료기록카드 등 병원용 시스템을 다루는 링크웰(도쿄·미나토)은 3월에 시스템을 서둘러 수정하여 의료보험 적용 온라인 진료에 대응했음
- 마이신은 주피터텔레콤과 손잡고 케이블TV를 이용한 온라인 진료 실증실험을 1월에 걸쳐 실시했는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가 이용하기 쉽게 하거나 대면에 비해 부족한 ‘오감’의 활용을 도와주는 대처로, 리모컨에서 문진표를 입력할 수 있어 고령자에게 호평이었다고 함
- 스마트폰과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청진기를 개발한 웨어메디컬의 미네 요시마사 대표는 “병원 내에서도 환자와 거리를 두면서 사용해, 의사에의 비말 감염 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

○ 호텔 등은 텔레워크 상품 도입 (아사히신문, 20.4.19)

- COVID-19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텔레워크가 급속히 퍼지고 있지만, 자택에서 일을 할 경우 아이의 목소리나 손님이 울리는 초인종 등에 신경이 쓰여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음

-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각지의 호텔에서 ‘텔레워크 응원 숙박상품’을 준비하여 관광객 감소로 비어 있는 방을 채우는 고육책이 호응을 얻고 있음
- 원래 일본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용이 많았던 한 호텔은 코로나 영향으로 숙박률이 떨어지게 되었음
- 이에 국내 고객들도 이용하였으면 한다는 텔레워크 응원 상품을 준비한 결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싶은 사람이나 만원열차로의 통근을 피하고 싶은 사람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함
-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 여러 호텔들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예약이 감소한 만큼 텔레워크 상품을 도입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음
- 숙박 사이트인 라쿠텐트래블에 의하면, 텔레워크나 리모트 워크를 키워드에 포함한 당일치기 상품의 이용이 금년 1월 후반부터 증가 경향에 있다고 함
- 오피스 가구의 오카무라가 작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자택 이외에서의 텔레워크의 단점으로서 ‘프린터 등 출력이 귀찮다’ (약 21%), ‘서류나 자료가 수중에 없다’ (약 20%) 등이 많았으나, 그러한 ‘단점이 해소되면 이용하고 싶다’ (약 19%)라는 의견도 있어 단점의 개선에 따라 손님은 한층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음

III. KJCF & KJE News

□ 한일 협력사업 참가 모집안내

(2020년도 제조혁신 전문가활용 현장 개선지도)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지도」 참가기업 모집

공장내 스마트화-연결화-디지털화를 구현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작업의 표준화와 개발-구매-생산-판매의 전체 최적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일재단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현장 출신의 베테랑OB들을 일본 도쿄대학 모노즈쿠리 인스트럭터 프로그램과 국내 실습훈련을 통해 표준화와 최적화 전문가로 육성, 국내기업의 실효성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반조성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도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 및 규모 : 제조 중소·중견기업 (업종 제한 없음), 10사
 - 지도기간 : 2020. 6. 1(월) ~ 9. 30(수) / 기업별 8일 (기업지정)
 - ◎ 『권장일정』 단기간에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1주일에 1일씩
 - ◎ 추가지도를 원하실 경우, 재단에 문의
 - 신청기간: 2020. 5. 6(수) ~ 5. 19(화) 24:00까지 홈페이지 접수
- 참가 신청하기 ⇨ https://www.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810

2020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실습교육 참가자 모집

ABOUT me 머리가아닌 몸으로 익히는 Q·C·D

연수일정(안)	프로그램일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흥시 1차 : 2020.6.9(화) 2차 : 2020.6.10(수) 3차 : 2020.6.11(목) 세종시 4차 : 2020.6.16(화) 5차 : 2020.6.17(수) 	<table border="1"> <thead> <tr> <th>시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0:00~11:00</td> <td>모노즈쿠리 현장개선 방법론 교육 및 체험실습 방법 설명 공정별 역할 분담</td> </tr> <tr> <td>11:00~12:00</td> <td>1Round(1개 흐름 생산) 공정실습 : 연습-작업-평가</td> </tr> <tr> <td>13:00~17:00</td> <td>팀별 개선과제 발굴, 개선지그 제작, 개선안 정리 팀별 개선안 발표</td> </tr> <tr> <td>17:00~17:30</td> <td>2Round(개선안 적용) 공정실습 : 연습-작업-평가</td> </tr> <tr> <td>17:30~18:00</td> <td>감사평가</td> </tr> </tbody> </table>	시간	내용	10:00~11:00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방법론 교육 및 체험실습 방법 설명 공정별 역할 분담	11:00~12:00	1Round(1개 흐름 생산) 공정실습 : 연습-작업-평가	13:00~17:00	팀별 개선과제 발굴, 개선지그 제작, 개선안 정리 팀별 개선안 발표	17:00~17:30	2Round(개선안 적용) 공정실습 : 연습-작업-평가	17:30~18:00	감사평가
시간	내용												
10:00~11:00	모노즈쿠리 현장개선 방법론 교육 및 체험실습 방법 설명 공정별 역할 분담												
11:00~12:00	1Round(1개 흐름 생산) 공정실습 : 연습-작업-평가												
13:00~17:00	팀별 개선과제 발굴, 개선지그 제작, 개선안 정리 팀별 개선안 발표												
17:00~17:30	2Round(개선안 적용) 공정실습 : 연습-작업-평가												
17:30~18:00	감사평가												

- 대상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규모 : 10명 x 5회
- 기간 : 1일(7시간)
- 신청기간 : 2020. 5.22(금) 18:00까지
홈페이지 접수

참가 신청하기

https://www.kjc.or.kr/news/recruit_view.jsp?recr_idx=4812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http://www.kjc.or.kr/jpinfo/report.jsp>)

- 일본의 CSR 현황과 시사점(2020-05-04)
- [일본발(發) 연구리포트] 일본 제조업의 품질관리 및 확보 추진을 위한 노력(2020-04-10)
- 일본정부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추진: 성장시장 창출 및 지역 활성화, 이노베이션 관련(2020-03-23)
- 일본기업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인식(2020-02-24)

Ⅳ. 한일경제지표

1) 2020년 3월 한국의 주요 對日 수출품목

순 위	품목명	2019년 3월(백만\$, %)			2020년 3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262	-13.1	-2,054	2,558	13.1	-1,839
1	광물성연료	249	-29.4	186	322	29.3	287
2	철강제품	332	-3.0	-203	284	-14.6	-232
3	수송기계	111	-2.8	-123	277	149.4	78
4	정밀화학제품	181	10.1	-208	215	18.7	-161
5	산업용전자제품	129	-17.7	-133	206	60.1	-81
6	전자부품	130	-23.5	-409	146	12.7	-518
7	농산물	103	5.5	73	102	-0.6	84
8	석유화학제품	103	-44.6	-258	100	-2.6	-178
9	금속광물	90	30.0	61	96	5.7	39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86	-5.2	-27	87	1.0	-36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2) 2020년 3월 한국의 주요 對日 수입품목

순 위	품목명	2019년 3월(백만\$, %)			2020년 3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4,315	-17.4	-2,054	4,397	1.9	-1,839
1	전자부품	538	-10.8	-409	664	23.2	-518
2	철강제품	535	-18.1	-203	516	-3.6	-232
3	정밀기계	368	-57.7	-324	494	34.1	-450
4	정밀화학제품	388	-4.9	-208	376	-3.2	-161
5	산업용전자제품	262	-15.2	-133	287	9.7	-81
6	석유화학제품	360	2.3	-258	278	-22.7	-178
7	산업기계	249	20.9	-168	209	-15.7	-136
8	기초산업기계	233	-14.6	-163	208	-10.9	-135
9	수송기계	233	-19.9	-123	199	-14.6	78
10	플라스틱제품	183	-6.7	-118	187	2.6	-114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3)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8년	2019년 4-6월	2019년 7-9월	2019년 10-12월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GDP>								
실질GDP	0.3	0.6	0.0	-1.8				
<개인소비>								
실질소비지출	0.9		3.7	-4.0	-4.8	-3.9	-0.3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지수 (수송기계 제외)	3.9	-6.2	-0.7	-9.5	0.6	0.3	-5.7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94.2	92.5	90.6	86.5	85.2	81.3	87.1	
증감률	-2.3	-4.7	-5.4	-9.4	-7.9	-10.1	-12.3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8.4			3.9	3.0	-19.4	13.0	
<수출입>								
수출수량	1.7			-3.8	-	-1.6	-2.4	P -11.2
수입수량	2.8			-4.5	-	-1.7	-17.3	P -2.5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1	-2.2	-1.1	-6.8	-3.7	-2.4	-5.7	
<법인 경상이익>								
전체규모전체산업	3.7	-12.0	-5.3	-4.6				
<도산>								
기업도산건수	8,235			2,211		773	651	740
증감률	-2.0			6.8		16.0	10.7	11.7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4	2.3	2.3	2.2	2.4	2.4	
<물가>								
국내기업물가	2.6		-0.9	0.3		1.5	0.8	P -0.4
소비자물가(종합)	1.0		0.3	0.5		0.7	0.4	
<금융>								
닛케이 평균주가	22,310		21,264	23,041		23,642	23,180	18,974
환율(엔/\$)	110.40		107.31	108.72		109.34	109.96	107.29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0년 4월)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

4) 2020년 3월 일본의 주요 수출국

순위	국가명	2019년 3월(백만¥, %)			2020년 3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7,202,046	-2.4	522,697	6,358,054	-11.7	5,408
1	중국	1,304,814	-9.4	-193,665	1,190,644	-8.7	-241,226
2	미국	1,415,779	4.4	682,943	1,182,095	-16.5	436,871
3	한국	498,875	-9.0	218,988	446,723	-10.5	180,626
4	대만	438,395	7.3	192,289	432,010	-1.5	195,668
5	홍콩	324,112	6.7	280,579	278,053	-14.2	271,209
6	태국	303,100	-5.7	60,816	256,373	-15.4	25,825
7	독일	210,019	1.6	-34,011	183,530	-12.6	-15,051
8	베트남	156,263	4.3	-33,333	172,200	10.2	-51,932
9	싱가폴	240,731	-0.7	167,028	159,563	-33.7	80,723
10	인도네시아	135,461	-13.8	-32,139	131,776	-2.7	-24,55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일본 부분(일본관세협회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5) 2020년 3월 일본의 주요 수입국

순위	국가명	2019년 3월(백만¥, %)			2020년 3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6,679,349	1.2	522,697	6,352,646	-4.9	5,408
1	중국	1,498,479	11.0	-193,665	1,431,870	-4.4	-241,226
2	미국	732,836	-0.1	682,943	745,224	1.7	436,871
3	호스트레일리아	475,726	22.3	-343,703	403,294	-15.2	-278,773
4	한국	279,887	-7.2	218,988	266,098	-4.9	180,626
5	아랍에미리트연합	199,815	-17.0	-121,091	249,531	24.9	-167,047
6	대만	246,106	1.9	192,289	236,342	-4.0	195,668
7	사우디아라비아	285,988	2.8	-231,445	231,320	-19.1	-165,173
8	태국	242,284	3.9	60,816	230,547	-4.8	25,825
9	베트남	189,595	21.8	-33,333	224,132	18.2	-51,932
10	독일	244,029	-7.5	-34,011	198,581	-18.6	-15,051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일본 부분(일본관세협회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6) 2020년 3월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3월(백만¥, %)			2020년 3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7,202,046	-2.4	522,697	6,358,054	-11.7	5,408
1	87(일반차량)	1,501,797	-1.9	1,293,830	1,294,271	-13.8	1,078,738
2	84(보일러 기계류)	1,523,522	-5.5	853,275	1,248,254	-18.1	642,991
3	85(전기기기 TV·VTR)	985,261	-5.9	116,393	962,701	-2.3	47,610
4	90(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396,338	-7.1	119,735	361,788	-8.7	103,248
5	00(비분류 상품/거래)	439,353	-1.5	309,435	353,345	-19.6	263,946
6	72(철강)	244,472	-13.6	171,276	263,155	7.6	205,024
7	39(플라스틱과 그제품)	245,414	-2.2	87,951	239,683	-2.3	98,333
8	29(유기화합물)	180,674	-1.5	31,834	145,019	-19.7	-1,366
9	27(광물성연료에너지)	122,638	15.3	-1,419,719	116,320	-5.2	-1,247,354
10	38(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121,791	5.7	65,022	115,898	-4.8	57,770

주: 품목명은 HS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일본 부분(일본관세협회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7) 2020년 3월 일본의 주요 수입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3월(백만¥, %)			2020년 3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6,679,349	1.2	522,697	6,352,646	-4.9	5,408
1	27(광물성 연료에너지)	1,542,357	-3.9	-1,419,719	1,363,674	-11.6	-1,247,354
2	85(전기기기TV·VTR)	868,868	3.8	116,393	915,091	5.3	47,610
3	84(보일러 기계류)	670,247	-1.9	853,275	605,263	-9.7	642,991
4	30(의료용품)	245,168	13.4	-199,504	269,266	9.8	-211,398
5	90(광학/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276,603	5.2	119,735	258,540	-6.5	103,248
6	87(일반차량)	207,967	-15.6	1,293,830	215,533	3.6	1,078,738
7	26(광·슬랙·회)	180,088	-5.6	-178,473	184,275	2.3	-182,301
8	71(귀석·반귀석,귀금속)	112,659	0.0	2,043	154,263	36.9	-56,365
9	29(유기화합물)	148,840	-13.4	31,834	146,385	-1.6	-1,366
10	39(플라스틱과 그제품)	157,463	12.3	87,951	141,350	-10.2	98,333

주: 품목명은 HS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통계 일본 부분(일본관세협회 제공)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